



# 은평한옥마을의 타 한옥마을과의 관광지화 정도 비교

연구자 : 정준우, 구윤서, 박선우, 박소은, 방채린, 신예원, 정승우, 조인수

## I. 서론

한옥에 대한 매체의 관심으로 한옥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은평한옥마을이 계획 한옥단지로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. 그러나 여타 한옥마을들과는 다르게 관광지로서의 성격보다는 택지지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. 본 연구는 은평한옥마을의 건물 비율을 바탕으로 은평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의 가치보다는 택지지구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밝히고자 한다.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은평한옥마을을 한옥양식으로 계획된 택지지구의 일환으로서 분석하기를 기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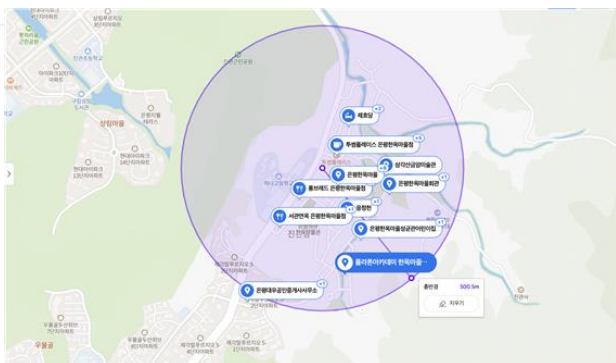
## II. 이론적 배경

관광화란 한 지역이 관광할 만한 곳이 되도록 개발하고 가꾸어진다는 뜻으로, 그 예시로 전주한옥마을과 북촌한옥마을이 있다. 전주한옥마을은 일반 거주자들이 생활하는 도심의 잔여 전통 한옥에서 관광지화를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한 결과, SNS 홍보와 상권 진입 등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. 북촌한옥마을은 과거 양반가의 한옥이 모여있다, 일제강점기 근대식 한옥마을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. 북촌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.

단독주택지역의 근린시설과 그 외 상점시설의 비율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영역 의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, 한 구역의 관광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역의 관광화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.

## III. 연구 방법

각 한옥마을의 반경 500m 내의 건물을 숙박업소, 식당, 카페, 그리고 기타(성당, 교회, 편의점 등)로 나누어 분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지라고 가정했다. 아파트의 경우, 한 가구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셈하여 주거지와 관광업소 간의 비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. 이후 총 건물 수로 관광업소의 수를 나눈 관광업소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은평한옥마을의 관광지화 정도가 다른 한옥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측정했다.



< 은평한옥마을 반경 500m 안을 설정한 지도 >

## IV. 결과 및 고찰

	숙박업소	식당	카페	기타	총 건물(가구) 수
은평한옥마을	50	7	4	15	369
전주한옥마을	314	44	49	34	1219
북촌한옥마을	120	109	58	8	612

전주한옥마을의 관광업소(숙박업소, 식당, 카페)의 총 건물 수와의 비율은 약 33%, 은평한옥마을의 비율은 약 16%, 북촌한옥마을의 비율은 약 46%였다. 그리고 기타 건물을 포함하면 전주한옥마을의 비율은 약 36%, 은평한옥마을은 약 19%, 북촌한옥마을은 약 48%였다.

결과를 해석하면 은평한옥마을의 관광업소 비율은 다른 한옥마을의 약 1/2, 1/3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즉, 은평한옥마을은 타 한옥마을, 혹은 관광지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.

## V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를 통해 은평한옥마을의 타 관광지화 비교해 얼마나 관광지화가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. 요식업소, 숙박업소 등의 부재는 은평한옥마을이 타 한옥마을과 비교해 관광지화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.

즉, 은평한옥마을은 관광지보다는 아직 처음 설계된 것처럼 택지지구에 더욱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.

은평한옥마을은 관광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지구이며 이를 통해 은평한옥마을의 성격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.

## VI. 참고 문헌

1. 홍영화. (2014). 서울 단독주택지역에서의 근린 상점 이용행태와 영역 의식에 관한 연구 -방배1동 단독주택지역 중심으로-. 49(7).
2. 김예림. (2017). 전통시장의 관광지화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-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. 한국조경학회지, 45(6), 76-89.